

윤호중 법사위원장 “檢개혁 마무리…법사위 갑질도 개혁”

김태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서 “코로나 3차추경 조기집행 위해 심사조속히 시작”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첫 일선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내세운 윤 위원장은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포함하여 과제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며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법사위의 발목 잡기와 뽀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사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가장 먼저 선출 안건에 올라갈 정

도로 민주당의 탈환 의지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국정운영 동력과 국회의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44선의 당권과 실제인 당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이 범틀가 출신이 아닌에도 법사위원장에 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버텼다.

한편 5선으로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야당의 빠른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원구성이 원만히 되어야 하는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통합당의 경직된 사고로 통합당 의회에서 (원구성 가함의안이) 부결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남북관계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누구 하나 만만하게 없다”며 “야당이 빨리 참여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코로나19의 시간이 지체되면 60여 년간의 기업 성과가 다 무너질 수 있다”며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을 듣기로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빨리 열어서 추경 심사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관행에 젖어있었

다면 K방역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정성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다른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

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심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원구성을 모두 마칠 때를 대비해 추경 심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가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 “냉해 피해 농가 지원대책 현실화해야”

선거 당시 농민들과의 약속, 첫 의정활동으로 지켜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냉해 피해가 심각했던 월등을 방문했고, 당선 후에도 낙안과 월등을 연이어 방문해

농민들과 함께 피해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가졌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21대 국회의 첫 의정활동을 냉해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발표로 시작함으로써 농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주도하여 전남도 국

회의원들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지역에서는 올해 4월 초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인하여 총 7,000ha가 넘는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 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방침을 세워 농민들이 이증고를 겪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순천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 농가들의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국방부 “북한군 동향 한미가 면밀히 감시”

“현 상황 엄중하게 인식...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한군이 남북합의로 비무장지대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방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 입장문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하게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는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군 당국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에 대해서도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 보도’ 형식으로 발표

한 입장문에서 “북남(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또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배려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했던 대남 군사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공세와 관련해 전날 학술세미나 연설에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18년 이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핵심군사능력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